

“3년 만에 제대로 된 피서...빛속 해수욕도 즐거워요”

코로나 엔데믹 후 전남 해수욕장 개장 첫 날 가보니

완도 명사십리·보성 울포 시작 57곳 순차 개장 불거리·체험 행사 등 가득...안전요원 상시 대기

“코로나 감염이 무서워 3년만에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된 여름 피서를 보내는 것 같아요”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난 8일부터 전남지역 해수욕장 57곳이 속속 개장을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밀집우려가 있는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발길을 멀리 했지만, 엔데믹으로 다시 피서객들이 전남 해수욕장으로 발길을 되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장 첫날인 8일 오전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는 비가 내리는 곳엔 날씨임에도 삼삼오오 모인 가족단위 피서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비가 온 탓에 바다에 몸을 담그는 피서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들 오랜만에 찾은 해수욕장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더위를 식했다.

일부 피서객들은 우산을 쓰고 해변을 걷고, 흐린

날씨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사진을 찍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곡성지역에서 온 산악동호회는 바다에 들어가 비치발리볼을 즐기기도 했다.

또 해변 곳곳에서는 모래성을 만드는 아이들과 모래찜질을 하는 가족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휴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은 임준(42·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씨는 올해 7살이 된 아들과 탱크모양의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겼다.

임씨는 “해수욕장 개장 소식을 듣고 즉흥적으로 가족여행을 와서 비가 올 줄은 몰랐다”며 “아침부터 기대한 아들을 위해서라도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남에서 온 이시은(12)양도 오래 전부터 해수욕장 개장일을 달력에서 적어뒀다가 조부모, 고모 등 대가족 9명과 함께 이날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았다. 이양은 “해남에서 오는 길에 비가 너무 많이와

서 부모님이 차를 돌릴 뻔 했다”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왔던 것까지 2배로 재밌게 놀겠다”고 웃어보였다.

8일 오후 비가 잦아들자 보성 울포해수욕장에는 한낮 더위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이 몰렸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불거리와 체험 행사 등이 마련돼 해수욕장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울포솔밭 해수욕장 오른쪽 해변에는 색색의 파라솔과 돛자리가 자리했고, 해상에는 대여한 ‘패들보드’ 위에 올라타 노를 젓는 아이,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들이 가득했다.

해수욕장과 연계된 텐트촌에도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물놀이를 싣기 위한 피서객들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텐트로 향했고 삼겹살을 굽는 냄새가 해수욕장을 가득 채웠다. 수박을 쪼개 나눠 먹으며 더위를 쫓는 가족들도 있었다.

광주에서 보성군 울포솔밭해수욕장을 찾은 김지훈(32)씨는 “오랜만에 해수욕장에 와서 물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먹으니 어릴적 가족여행이 떠오른다”며 “3년만에 해수욕장에 오니 피서다운 피서를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보성군 벌교읍에 거주하는 박영훈(42)씨는 “고등학생때부터 울포솔밭 해수욕장을 매년 방문했는데 4살 된 딸이 태어난 후로는 코로나 때문에 해수욕장에 오지 못했다”며 “딸이 태어나고 해수욕장을 오는



지난 8일 보성군 울포솔밭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처음 왔으니 사진을 많이 남길 생각이다”고 전했다. 지자체들은 본격적인 해수욕철을 맞아 안전사고에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운영 관계자는 “매일 안전요원 40여명이 망루 5개소에 상시 대기하고 정기적인 도보순찰, 해상 제트스키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요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 12개 시·군지역 57개 해수욕장이 8일부터 차례로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이한다. 전남에서 가장 먼저 개장한 곳은 완도군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보성군 울포솔밭해수욕장 등 12곳이다.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나머지 44곳의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는다. 영광군 송이도 해수욕장은 이달 22일 개장한다. /완도·보성 글·사진·장윤영 기자 zzang@

양금덕 할머니 측 “공탁 불수리 재판부 결정 정당”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5)할머니 측이 공탁 불수리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된 광주지법에 ‘공탁 불수리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할머니 법률 대리인 측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재단)이 공탁지법에 낸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과일장사를 하고 있다는 시민이 손주와 함께 9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응원 첫 거리모금’에 동참했다.

이의 사건을 심리하는 민사44단독(판사 강애란) 재판부에 피공탁자 대리인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아직 심리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지만 양 할머니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는 지난 5일과 7일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서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은 정당하다는 내용과 양 할머니가 그동안 정부의 제3차 변제안을 거부해온 과정을 설명하며 공탁 수용 거부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관련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공탁 대상자의 자격으로 참고 자료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재판부에 의

견서를 제출했다. 공탁지법 공탁관은 지난 3일 제3차 변제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양 할머니를 상대로 재단이 신청한 공탁을 ‘불수리’ 처리했다.

이에 외교부는 광주지법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재단을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공탁관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이 공탁신청 적법성을 판단하게 됐다.

한편, 양 할머니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해법안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 4명을 위한 시민모금을 지난달 29일 전국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8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는 첫 거리모금이 진행됐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신뢰 잃은 광주경찰청 감찰 받는다

경찰청 감찰관 상주

일선 현직 경찰의 잇따른 불법행위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광주경찰청이 경찰청의 집중감찰을 받게 됐다.

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10일부터 경찰청 감찰관들이 광주경찰청에 상주하면서 집중감찰 활동을 벌인다. 감찰관들은 특히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주로 들여다 본다.

앞서 경찰청은 잇따른 비위사건이 벌어진 대구경찰청에서 3주간 집중감찰 활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광주경찰청에 대한 집중감찰도 최근 광주경찰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감찰은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7일 광주경찰청은 ‘음주운전 관련 공직 기강 확립’ 특별경보를 관내 직원들에게 발령했음에도 이날 밤 광주광안경찰서 파출소 소속 A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차로 신호대기중 잠이 들어 시민들에게 신고를 당했다.

하루 앞선 지난 6일에는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B순경이 서구 쌍촌역 인근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처에 해당(0.096%)하는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신호제어를 들이받았다.

지난 2022년 12월, 올해 3·4·5월에도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의 비위행위가 이어져 징계가 잇따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의무위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청이 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에 들어간 것”이라며 “신임 직원 대상 예방교육과 관서별 찾아가는 교육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전남 올 첫 열대야 ‘광주 최대’ 광천동 재개발 속도...관리처분계획 인가

폭염과 장맛비가 번갈아 오고 있는 광주·전남에 지난 8일 광주와 무안·영광에 올해 들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열대야는 지난해보다는 12일 늦었지만 오는 12일까지 다시 비가 예보됨에 따라 폭염과 열대야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2일 오전까지 광주·전남 전 지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9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10일 낮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고 전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광주지역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구로 꼽히는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최근 관할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광주시 서구는 지난 7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1년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사업을 마친 이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될 대지·건축시설 등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배분할지 정한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주·철거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총 정비사업비 2조 5936억원을 투입해 광주시 서구 광천동 670번지 일대 43만여㎡ 부지에 53개 동 5611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 중 2344세대를 기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계획이며, 2738세대를 일반분양하고 507세대는 임대할 예정이다. 나머지 22세대는 보류지로 남겨둘 방침이다.

조합은 또 사업지 인근 3만 5900여㎡ 공간에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5184㎡ 규모의 광장을 만들 계획도 세웠다.

조합은 오는 2025년 착공한 뒤 2028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쿡!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쿡!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쿡!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익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지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